

# **SEDEX 2018 Review**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18. 10.

# SEDEX 2018

The 20th Semiconductor Exhibition

Since  
1999

# 제20회 반도체대전

10.24(WED) ~ 10.26(FRI) COEX

- 국내 반도체산업계 최대 행사인 반도체전시회 'SEDEX 2018'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설계, 재료, 설비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쏠 분야 195개 기업이 530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올해 반도체대전은 사상 최대급 참가 기록을 냈다.
- **SK하이닉스**는 'The Era of Memory'라는 주제 아래 4차산업혁명시대 메모리반도체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반도체의 사각형을 상징화한 부스 중심부에서 서버용 D램 및 eSSD와 최신기술이 적용된 HBM2, 모바일용 낸드플래시 UFS2.1 등을 전시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공정 및 신·구 메모리반도체 비교를 통한 기술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최신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삼성전자**는 모바일, 서버, 오토모티브, 소비자용 제품 등 각 응용처별로 전시 부스를 구성하고 다양한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였다. 10나노급 D램, 초고성능 HBM2(고대역폭 메모리), 소비자용 SSD '970시리즈', 'X5', 차세대 모바일·AI 등에 최적화된 '엑시노스'라인업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했다.

▶ 행사명 : 제20회 반도체대전 (SEDEX, Semiconductor Exhibition)

▶ 위치 : 서울 삼성동 COEX Hall C (3F)

\* 전자展 : A~B홀(1F), 디스플레이展 : D홀(3F)

▶ 기간 : 2018년 10월 24일(수)~26일(금)

▶ 규모 : 195개사 530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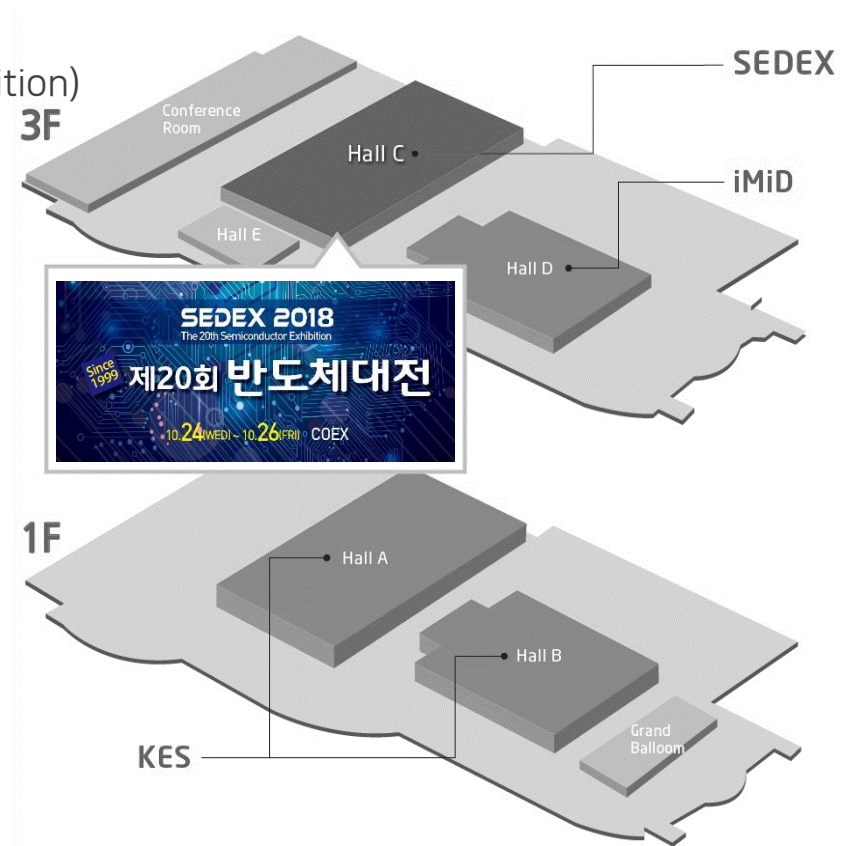
\* 한국전자산업대전 729개사 1,922부스 36,007㎡

▶ 참관인원 : 15,352명

\* 한국전자산업대전(A~D홀) 63,769명

▶ 주관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후원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램리서치, 모션컨트롤



- 스마트폰, TV 등 반도체 수요제품부터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장비/부분품, 재료, 설비, 센서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 분야가 참여**
- 전시회 참가기업 상호간 공급/수요기업이 되는 **산업 생태계형 전시회** 로 전시기간 동안 홍보 ·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 가능
-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제공
- **동일기간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자展 · 디스플레이展과 더불어 개최** 되는 ICT 전시회로 관련 다양한 기술정보 확보 및 홍보효과 기대



SK hyn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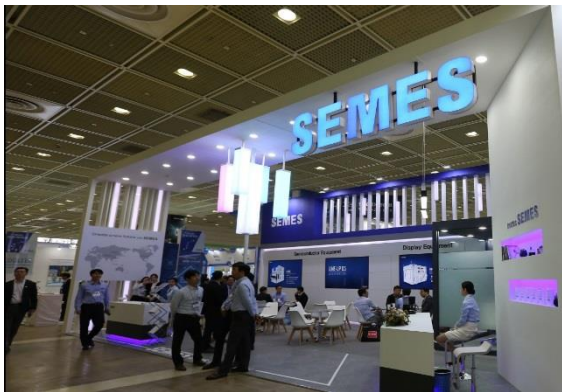


Dongjin Semichem



Samsung Electronics

- 반도체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매출이 급성장한 반도체 장비/재료/부품 기업들도 전시회에 대거 참여했다. 국내 최초 매출 2조원을 돌파한 **세메스**는 매엽식 웨이퍼 세정 설비군을 비롯하여 Photo Track, Etcher 등 반도체 전공정 장비와 Saw & Sorter, Probe Station(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등 후공정장비 함께 전시에 참여했다. 세계 최고 반도체장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익IPS**(ALD), **이오테크닉스**(레이저마커), **PSK**(Asher), **엑시콘**(SSD Tester) 등이 다양한 반도체 생산 장비를 내보이며, 초미세공정과 3차원 소자 공정에 적합한 장비 기술력을 선보였다. 반도체 제품의 다양화와 미세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도체 재료 분야에는 **SK실트론**(300mm 웨이퍼), **동진세미켄**(Photo Resist)이 참여하였으며, 반도체 설비 자동화에 대한 모션컨트롤 특별관도 운영되었다. 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은 자사 구매팀을 반도체대전 현장에 파견, 장비·재료·부품 기업 부스를 방문하며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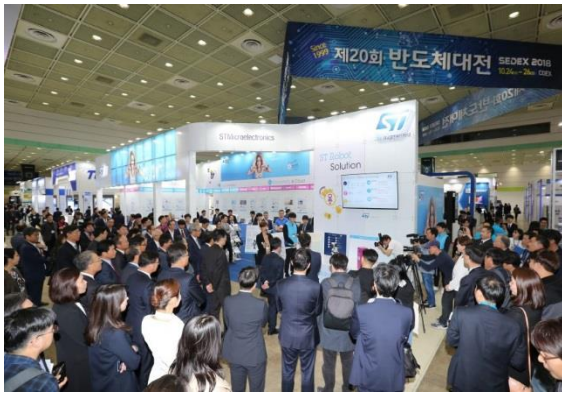
SEMES



EO TECH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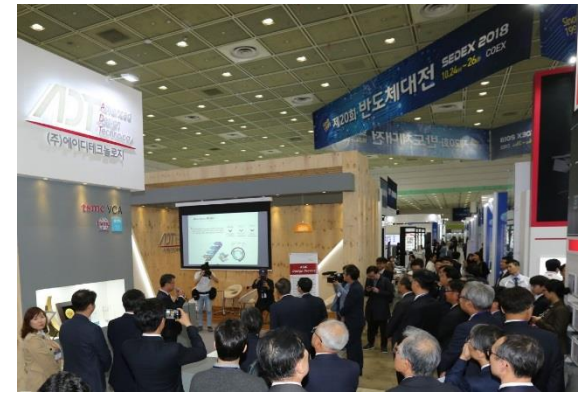
SK Siltron



STMicroelectronics



Silicon Mitus



ADTechnology

-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설계(IP, 펌리스) 제조(파운드리) 기업들이 최근 ICT산업의 최대 화두인 AI, IoT 관련 기술을 선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ST마이크로**는 반도체 산업에 최적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솔루션 “최신형 클라우드 커넥티비티, 스마트 인더스트리, 센싱솔루션”을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선보였으며, 국내 최초로 PMIC를 국산화한 **실리콘마이터스**는 OLED PMIC를 비롯하여 AI 스피커용 앰프 칩 등을 소개하였다. 이 밖에도 CPU Core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IP 1위 기업 ARM은 최근 개발 완료한 머신러닝 IP를 공개했으며, 국내에서 TSMC 설계를 서비스 하는 유일한 기업 **에이디테크놀로지** 7~12나노 반도체 제조 공정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아날로그 전문기업인 레오엘에스아이, 씨자인, 테크위드유, 딥러닝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퍼아이,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서비스기업인 하나텍이 참여하고, 해외에서는 Andes Tech(臺) 등 IP전문기업 8개사가 **IP파빌리온**이라는 공동관에 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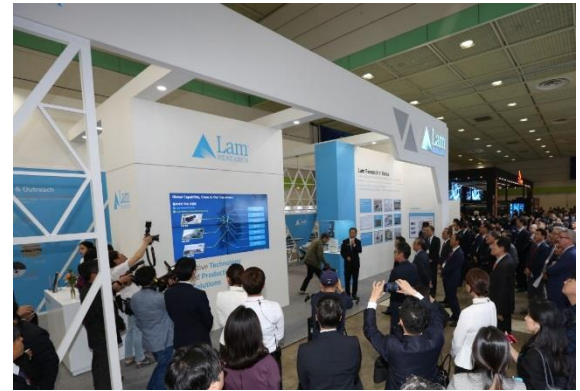
IP Pavillion



arm



SUALAB



- 올해 3회째인 시스템반도체에 특화된 'IP-SoC Design Conference'가 첫째날(24일(수)), 셋째날(26일(금))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첫째날에는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머신러닝, IoT 등을 주제로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 셋째 날에는 IP공동관에 참여한 IP기업의 발표와 더불어 IP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등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가 모여 기술교류와 함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24일에는 '반도체 시장 전망 세미나'가 이어졌다. 글로벌 메모리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19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 '통신 기술 발전과 5G 시장전망'을 주제로 향후 반도체 메모리 및 ICT시장을 조망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24~25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양 협회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잡페어(Job Fair)를 개최했다.



## 2018 반도체대전 KEYNOTE SPEECH

### Moving Beyond Challenges of Semiconductor Technology

반도체 기술의 한계 극복

2018.10.25(목) 14:30-15:50  
COEX Conference Rm.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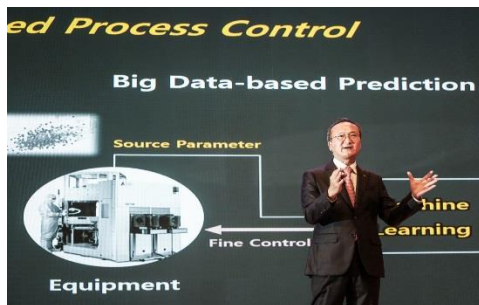
**Seok-Hee Lee**  
President & COO

Challenges for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Martin Anstice**  
CEO

Perspective: Accelerating the Succes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머니투데이

### 이석희 사장 "반도체산업 기술·생산성 위기, 협업으로 해결해야"

기사입력 2018-10-25 17:30 | 기사원문 | 스포츠 | 본문듣기 | 설정

공감 댓글

유익함 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반도체대전 키노트 스피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SK하이닉스, 풀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을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반도체대전 키노트 스피치' 행사에서 본 도체 산업의 한계 극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25일 반도체 산업이 현재 기술적 도전과 생산성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반도체대전(SEDEX)' 키노트 스피치(기조연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현시대를 컴퓨터 플랫폼과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넘어 수십억명이 서로 연결되고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시대라고 명명했다.

이 사장은 "이 시대에 발전적인 것은 데이터의 폭발적 성장"이라며 "올해 특히 반도체의 성장은 이미 지켜보셨는데 이를 견인하는 것이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과 데이터센터의 성장이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현재 반도체 업체들이 기술, 생산성 등 크게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게 미세화하는 데 있어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 보니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쟁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니 루자가 많이 들어간다"며 "요즘은 공정 하나 짓는데도 수조원이 들어가고 장비까지 채우려면 삼뿔조가 소요된다. 포화 수율을 높게 도맡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했다.

- 반도체대전 메인 행사로 25일 오후에는 '반도체 기술의 한계극복'을 주제로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마틴 앤스티스(Martin Anstice) Lam Research CEO가 미세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주도했던 반도체 산업이 ICT 시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향후 직면한 도전, 방향성에 대한 키노트를 진행했다.

## Total Vis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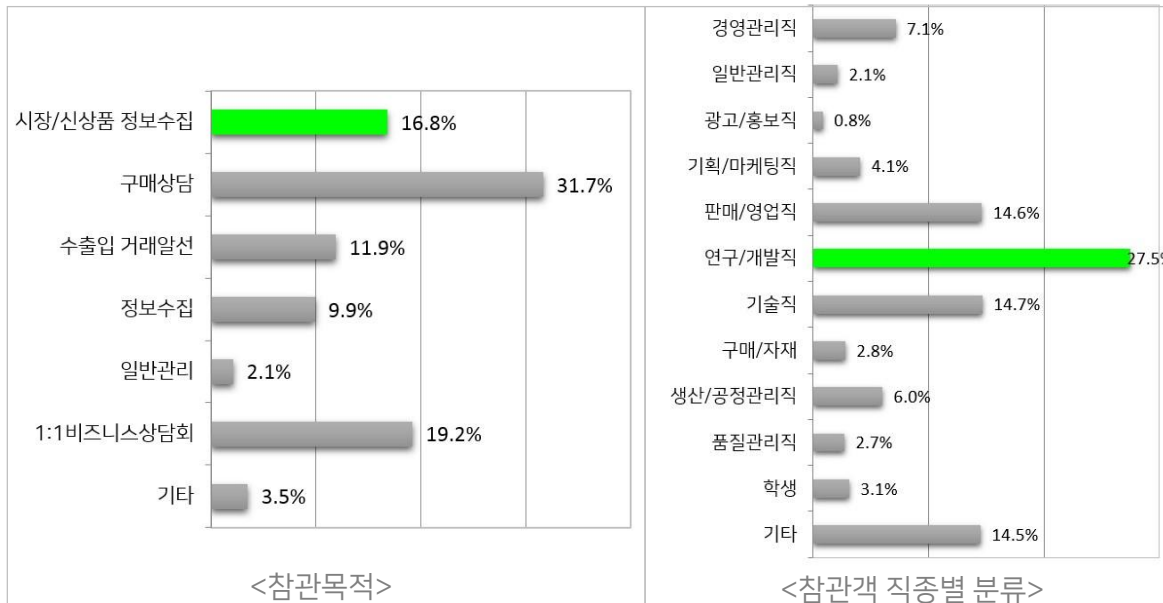
63,769

- Hall B (1F) 입장객 36,440
- Hall C (3F) 입장객 15,352
- Hall D (3F) 입장객 11,977

※ 삼성전자 임직원 1,176명 / SK하이닉스 임직원 835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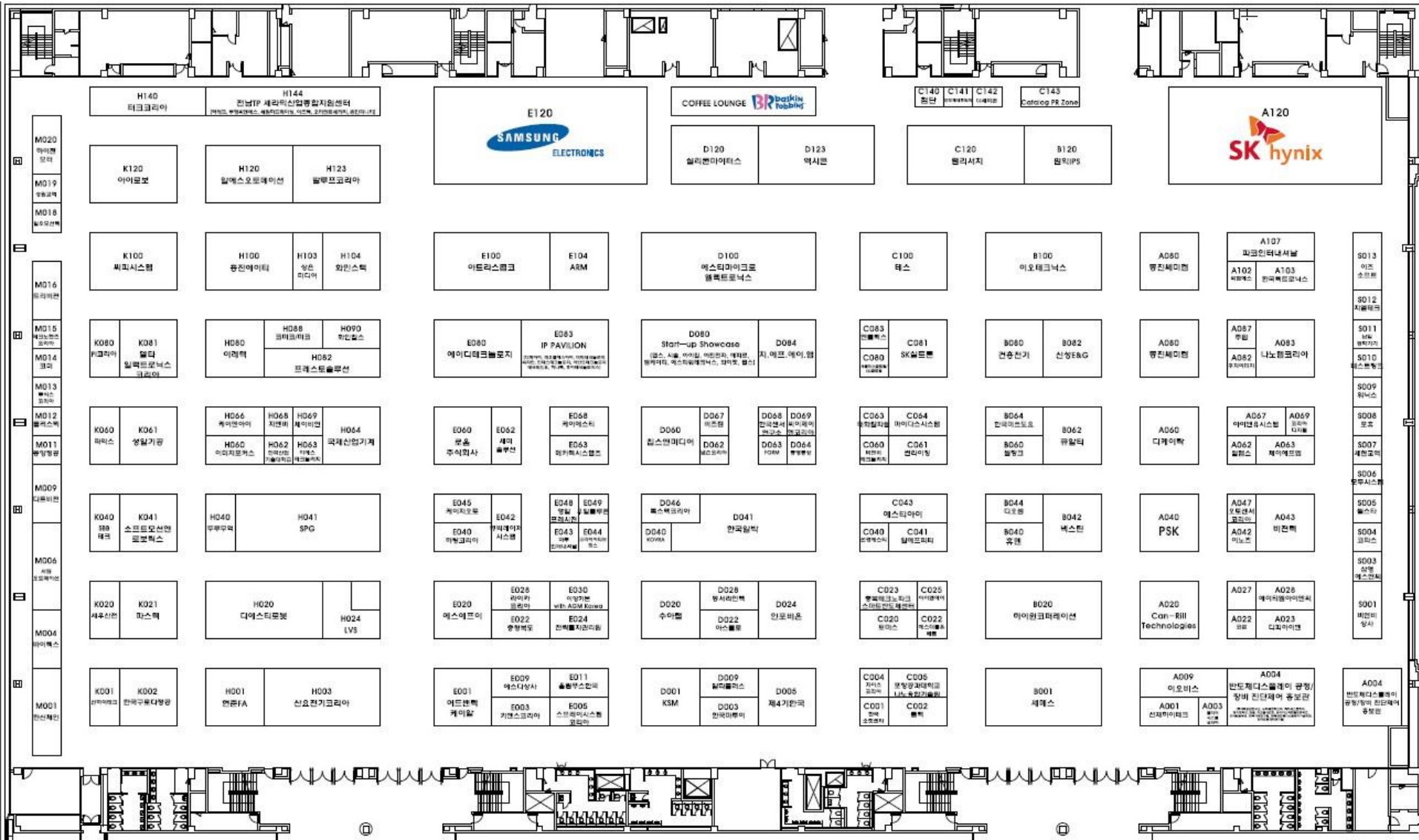
## Top Visiting Companies

- Amkor Technology
- Dongjin Semichem
- EO Technics
- GLOBALFOUNDRIES
- Huawei
- Hyundai Mobis
- INTEL
- KT
- LG Electronics
- LG Siltron
- MagnaChip
- OPPO
- SAMSUNG ELECTRONICS
- SEMES
- SK Telecom
- SKhynix
- SMIC
- SONY
- Statschippac
- TSMC
- UMC
- WONIK





# 2018 Floor Plan



※ 반도체대전 참가사의 제품품목, 회사소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SEDEx.org](http://www.SEDEx.org) ▶ 전시회 정보 ▶ 참가사 디렉토리

## • 10월 24일(수)

장소	시간	프로그램	주최
301호	10:00~17:00	자율주행을 위한 첨단센서 발전전략 기술 세미나	마이스포럼
307호	10:00~16:00	반도체시장 전망 세미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8호	12:30~17:00	2018 IP-SoC Design Conference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9~315호	10:00~17:00	반도체 디스플레이 Power Company Job Fair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27호	09:00~18:00	반도체 산학연 교류 워크숍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시장 내	13:00~17:00	소자기업 구매상담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 10월 2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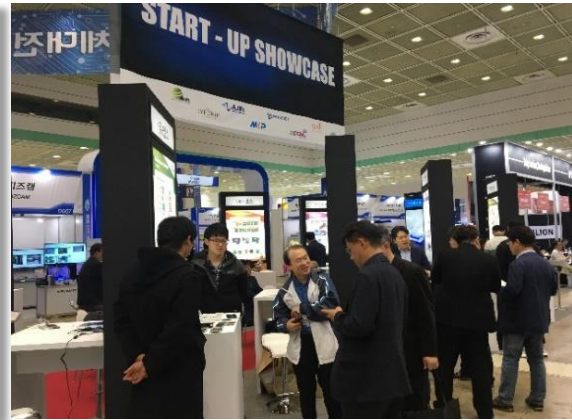
장소	시간	프로그램	주최
401호	14:30~16:00	반도체대전 Keynote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1호	10:00~17:00	고기능 필름 산업분야별 활용기술 및 미래형 디스플레이 최신기술 세미나	마이스포럼
E(1~4)호	09:30~18:00	ISMP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300호, 307A	09:00~18:00	반도체 산학연 교류 워크숍	한국반도체연구조합
309~315호	10:00~17:00	반도체 디스플레이 Power Company Job Fair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27호	13:30~16:30	반도체 IR Conference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시장 내	13:00~17:00	소자기업 구매상담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 10월 26일(금)

장소	시간	프로그램	주최
301호	09:00~14:00	2018 IP-SoC Design Conference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27호	09:00~18:00	반도체디스플레이 심포지엄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기술학회
E(1~3)호	09:30~18:00	ISMP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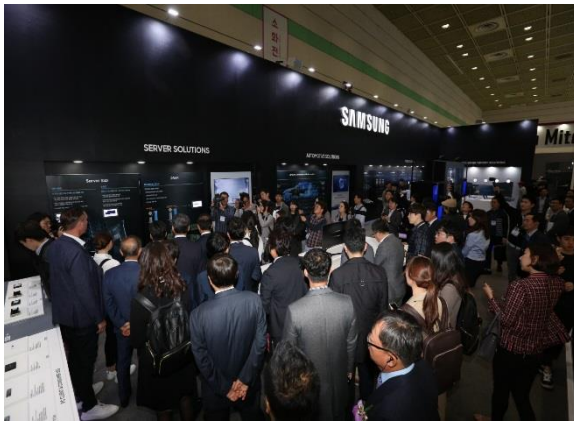
SEDEX Keynote



Startup Showcase



Market Trend Seminar



SEDEX Floor Tour -1<sup>st</sup> day



SEDEX Floor Tour -2<sup>nd</sup> day



Buyer Trade Meeting

- 반도체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홍보관인 'Start-up Showcase'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참가사들의 기술 홍보, IR 피칭,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엠케이피, 파워테크닉스, 아이칩, 와이젯, 텀스 등 반도체 분야 유망 스타트업 9개사가 자사의 신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다. 반도체 중기·벤처·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반도체 IR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로움, 2018 반도체대전 참가...첨단 반도체 솔루션 소개

2018.10.23 09:44:20 / 신현석 shs11@ddailv.co.kr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반도체 기업 로움(ROHM)이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반도체대전(이하 SEDEX)'에 참가한다.

로움은 'Automotive', 'BMS Reference', 'Industrial & IoT', 'Wearable', 'SiC Power Devices', 'Power Devices' 코너로 나누어 첨단 반도체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SEDEX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고해상도 LCD 패널용 기능 안전 도입 오토모티브 칩 세트', 'Low EMI 차량용 강압 DC/DC 컨버터', '16셀 직렬 대응 BMS 레퍼런스 보드' 등이다.

기능 안전 도입 오토모티브 칩 세트는 자동차의 클러스터 및 카 네비게이션 등에서 채용되고 있는 대형 및 고해상도 LCD 패널용으로, 차량용 LCD 패널에서 구동 및 제어를 담당하는 제품이다. 구성하는 각 IC가 상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함으로써 LCD 패널용 디바이스만으로 기능 안전을 지원하는 데 성공했다. 부스에서는 실제로 차량용 LCD 패널이 고장 난 경우에 칩 세트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시연할 예정이다.

Low EMI 차량용 강압 DC/DC 컨버터는 Quick Buck Booster를 탑재했다. 로움 측은 "크랭킹 시 큰 전압 강하가 발생하는 마이클링 스톱 탑재 자동차 등에서 송강압 전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정 성능과 외장 부품수에 큰 과제가 있다"라며 "새로운 발상의 송강압 제어 기술 'Quick Buck Booster'를 탑재한 차량용 송강압 전원 칩 세트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부스에서는 송강압 전원 칩 세트의 기판 구성 비교를 전시할 예정이다.

## Da 디지털데일리

✓ PICK ①

## ST마이크로, "세상 바꿀 IoT...이제 보안에 신경쓸 때"

기사입력 2018-10-26 09:3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1 댓글

요약본    가    ㅁ    ㅂ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안 영역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로만 구현하면 보안이 취약합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한국 지사 대표 박준식, 이하 ST)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018 반도체대전(SEDEX 2018)'에 참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데일리>와 만난 ST의 광채현 '보안 MCU' 부문 마케팅 부장<사진>은 국내 산업계에서 보안 불감증이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SEDEX 2018]

## [SEDEX 2018] 이석희 사장 "반도체 생산량, 인류 데이터 속도 못 따라가"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8.10.25 16:15 | 수정 : 2018.10.25 16:15

관련종목 ▶

SK하이닉스(000660)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25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지난 2003년까지 축적된 데이터는 5EB(엑사바이트·10억GB 수준) 가량이다. 현재 이를 만개 같은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동안 공급되는 낸드플래시 양은 그것(5EB)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이다. 인류가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담을 만큼 반도체 생산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25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18'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류가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도 증가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띠 배경도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성장에 있었다. 이 사장은 주장은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장의 시각과 상반된다.

## "반도체, 기술·생산 효율 더 높여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반도체대전(SEDEX) 2018 키노트 연설을 하고 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반도체대전(SEDEX) 2018 키노트 연설  
3분기 매출 11조4168억 최고 실적 기록

"기술의 발달로 반도체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반도체대전(SEDEX) 2018 키노트 연설에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에서 반도체 업계가 도전할 부분으로 '기술의 발달'과 '생산성' 두 가지를 꼽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으로 4차 산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사장은 먼저 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반도체가 미세화됨에 따라 생겨나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기술의 발달로 공정 자체가 원자 단위의 스케일로 이뤄지는 만큼 점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는데 이에 맞춰 미세화 하는데 있어서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엄청나게 미세한 것을 굉장히 깊고 높게 패턴으로 해야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반도체의 공정을 미세화 하면서 패턴(반도체 칩 안의 얇은 막에 회로 패턴을 만드는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93nm(나노미터) 파장의 스테이지에서 EUV 기술을 활용해 13.5nm로 가면 패턴을 단순화 할 수 있고 공정 스텝 수도 줄게 된다"라며 "포토반도체 공정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기술의 소재가 빛에 얼마나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중요도 도전도 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이 같이 이뤄나가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생산의 효율성을 두 번째 해결 과제 소개했다. 투자 비용이 높은 만큼 여러 단계의 공정을 완벽하게 관리해 생산 코스트의 효율화

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감 하나를 갖는데 10조원 가량이 들어가고 관리해야 하는 수지도 수천개가 넘는다고 하며 "공정 스텝 순서도 500개에서 600개가 넘는 데 그 모든 공정이 완벽해야 효율이 나온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생산 관련 코스트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이 길어지면 제품이 나오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만큼 어떻게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도 도전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를 제시했다. 여러 장비들 하나로 잡히게끔 공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는 "하이브리드로 여러 기능을 묶으면 더욱 집약된 하지만 생산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다 봐야 한다"라며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가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개발도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율리 이 사장은 향후 미래 사회에서 반도체의 발전이 꼭 필수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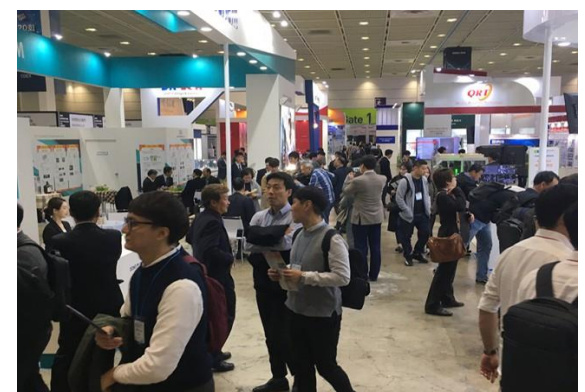
자동차, 교통에서 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기기와 시스템을 모두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엣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edge) 디바이스, 엣지 인프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반도체 부품의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모이고 빅데이터가 되면 거기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폭발적 성장이 나오는데, 이를 서로 트거기 위해 데이터 센터 역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경영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11조4168억원, 영업이익 6조4724억원, 순이익 4조8922억원 등 모든 부문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진영 기자camp@

# 2018 SEDEX 현장스케치



# 2018 SEDEX 현장스케치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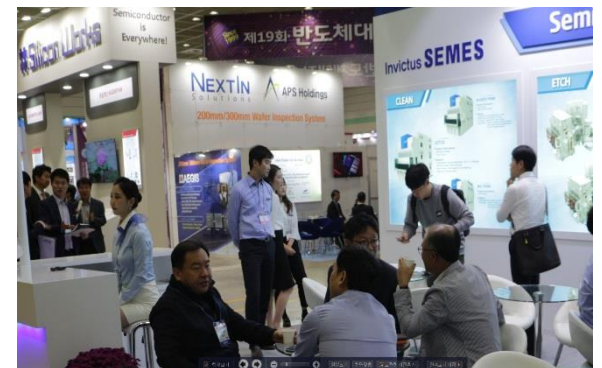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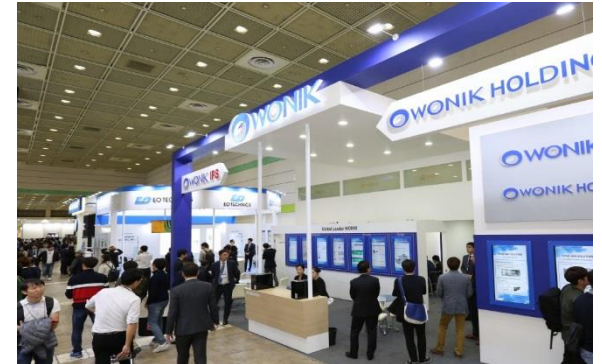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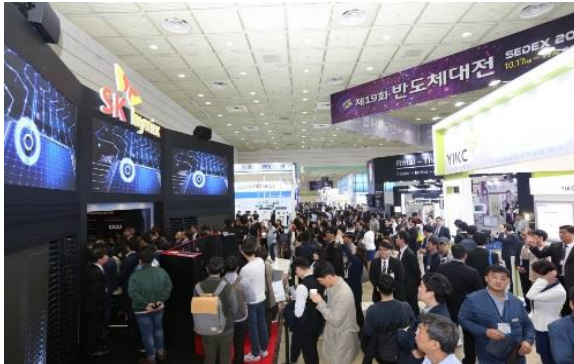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R84han-eaZQ&t=31s>

반도체대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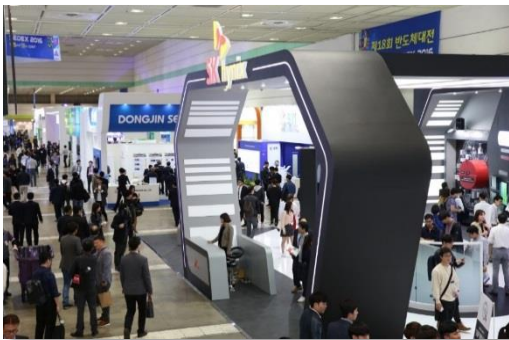
# 2017 SEDEX REVIEW

- ▶ 행사명 : 제19회 반도체대전 (SEDEX, Semiconductor Exhibition)
- ▶ 위치 : 서울 삼성동 COEX Hall C (3F)
  - \* 전자展 : A~B홀(1F), 디스플레이展 : D홀(3F)
- ▶ 기간 : 2017년 10월 17일(화)~19일(목)
- ▶ 규모 : 180개사 517부스
  - \* 한국전자산업대전(A~D홀) 788개사, 37,403㎡
- ▶ 방문객 : 63,184명 (Hall C: 14,424명)





- ▶ 행사명 : 제18회 반도체대전 (SEDEX, Semiconductor Exhibition)
- ▶ 위치 : 서울 삼성동 COEX Hall C (3F)
  - \* 전자展 : A~B홀(1F), 디스플레이展 : D홀(3F)
- ▶ 기간 : 2016년 10월 26일(수)~28일(금)
- ▶ 규모 : 183개사 480부스
  - \* 한국전자산업대전(A~D홀) 788개사, 37,403㎡
- ▶ 방문객 : 62,891명 (Hall C: 11,103명)



# 제21회 반도체대전

2019.10.8(TUE) ~ 10.11(FRI)

COEX Hall C(3F), SEOUL

## SEDEX 2019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 분야가 참가하는 반도체대전

SEDEX 2019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제품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로,

세계 반도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술교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10월 9일은 법정공휴일로 휴관합니다

<2019년도 전시 문의>

☎. 02-570-5229

E. flower@ksia.or.kr

H. www.sedex.org